

산사서 차례 지내고 휴식도

조상 은덕 기리는 정신 살린

한가위 맞춤형 템플스테이 풍성

가족들 모여 송편 빚고 화목 다져

달맞이 명상 탐돌이 등 행사 다채

이번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산사에서 송편을 빚어 차례를 올리고, 달맞이도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다양한 추석템플스테이를 마련, 풍성한 한가위를 선사한다.

추석템플스테이는 가족은 물론 고향에 못가는 새터민과 명절을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 조용한 명절을 지내고 싶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찰에서 여법하게 차례를 올리는 시간 외에도 예불, 108배,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송편 빚기나 보름달 보며 소원 빌기, 웃놀이 국궁체험 등 전통놀이를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산사에서 합동차례를 올리며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색다른 한가위 추억을 쌓고 싶은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곳곳에서 열린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7일부터 9일까지 추석달맞이 템플스테이를 열어 송편빚기, 화성8경명상, 전통놀이, 합동차례 등을 함께 한다. 세종 영평사는 6일부터 9일까지 '구절초 향기 풀풀(full-full) 한가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경주 굴굴사는 6일부터 9일까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달빛 명상과 불가의 수행법인 선무드라(선무도)가 함께 하는 '함월산 그윽한 달밤에 달빛명상과 선무드라'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부안 내소사 '달빛맞이 추석 템플스테이'에서는 트레킹, 탐돌이, 김밥·주먹밥 만들기 외에도 송편 빚기, 보름달빛 아래 소원 빌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7일과 8일 이틀간 열리는 동해 삼화사 '추석 달맞이' 템플스테이에서는 학소대 달빛 명상, 소원등 띄우기, 일출명상 등을 함께 한다.

번잡한 추석연휴를 피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5일부터 9일까지 성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내내 '달빛아래 다섯 날' 템플스테이를 열어 만다라 명상, 사성암, 연기암, 노고단 탐방 등을 함께 한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휴식을 원하는 30대 젊은이들을 위해 '디디고 추석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수원 봉녕사는 7일부터 8일까지 개인 대상 '추석 휴~ 방콕탈출 템플스테이'를 열어 걷기명상, 스님과의 차담, 내 마음 이야기 등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여주 신륵사는 새터민을 위한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고향을 떠난 새터민을 위해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는 한가위배 웃놀이, 송편 빚기, 달맞이 등을 함께 한다. 기간은 7일부터 9일까지며, 일반 참가자는 받지 않는다.

한편, 전국 사찰에서는 추석인 오는 8일 일제히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2014년 추석 템플스테이 일정

공주	갑사	달빛 맞으며...추석 템플스테이	9.6~8	041-857-8921
경주	굴굴사	함월산 그윽한 달밤에 달빛명상과 선무드라	9.6~9	054-775-1689
부안	내소사	달빛맞이 추석 템플스테이	9.6~9	063-583-3035
해남	대흥사	디디고 추석템플스테이	9.7~9	061-535-5775
해남	미황사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9.6~9	061-533-3521
인제	백담사	한가위어울림템플스테이	9.5~6	033-462-5565
			9.6~7	
			9.7~8	
가평	백련사	한가위 특별 템플스테이	9.7~9	031-585-3853
용인	법륜사	꿈이 이루어지는 한가위	9.7~8	031-321-3155
수원	봉녕사	추석휴~방콕탈출템플스테이	9.7~8	031-256-4127
서산	부석사	한가위 템플스테이	9.7~8	070-8801-3824
동해	삼화사	추석달맞이	9.7~8	033-5347676
서산	서광사	한가위 템플스테이	9.7~8	041-664-2001
여주	신륵사	나를 위한 행복여행	9.7~9	031-885-9024
공주	영평사	구절초향기풀풀(full-full)한가위템플스테이	9.6~9	044-854-1854
			9.6~11 9.13~14	
강릉	용연사	추석 템플스테이	9.6~8	033-647-1234
수원	용주사	추석달맞이 템플스테이	9.7~9	031-235-6886
강화	전등사	한가한 추석 템플스테이	9.6~8	032-937-0152
구례	천은사	달빛아래별빛아래템플스테이	9.7~8	061-781-4800
용인	화운사	행복을 찾아서	9.6~7	031-337-2576
구례	화엄사	달빛 아래 다섯날	9.5~9	061-782-7600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한국불교 최고의 역사, 열독물을 자랑하는 불교신문은 문서를 통한 불법홍포를 목적으로 우리사회에 행복과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한 장의 불교신문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기치아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불교신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 부문 및 응시자격

채용 분야	인원	채용형태	응시 자격
독자관리 및 영업	0명	정규직 / 신입	불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 조계종총무행정학교 수료자 우대

2. 전형 방법

1차 : 서류전형 / 2차 : 필기(불교교리 및 상식) / 3차 : 면접

※ 모든 전형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지원 방법 : 본사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이메일 : bud22@bulgyo.com)

4. 접수기간 : 2014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18시까지

5. 문 의 처 : 불교신문사 업무국 관리부 ☎ 02-730-4489

※ 자세한 내용은 불교신문 홈페이지(www.ibulgyo.com)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불교 신문사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범종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7대 종교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기사 2면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붓다처럼 자유인의 길 떠나보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추석맞이 2500여명에

소설 '사람의 맨발' 선물



식타르타를 생생하게 그려내 상반기 불교출판계에 화제가 된 작품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추

르타의 맨발을 통해 출가 정신을 잊지 말고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한 이 책의 회원처럼 ‘참다운 자유인의 길’을 떠나보길 바란다”는 권유도 잊지 않았다.

소설가 한승원 씨는 “출가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요지로 쓴 작품이 총무원장 스님의 추석 선물로 선정돼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부처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싶은 것이 스님의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09년 11월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부터 매년 설날, 추석 등 명절과 부처님 오신날에 불서 3000여 권을 구입해 불교계 안팎 다양한 인사들에게 나눠주는 등 불서보급에 앞장서 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세월호 특별법, 정쟁대상 아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긴급호소문 발표

‘국회해결 방안’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8월31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으며,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는 소중한 약속”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진실 규명과 국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그 첫

걸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여야는 두 번의 합의와 번복, 장외투쟁 등으로 국민을 혼란과 갈등에 빠트리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정쟁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승스님은 유가족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되도록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국민의 거룩한 마음을 믿고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들에게도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각자의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5대 종교인 연합기도회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천도교한울연대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5대 종단 종교인협의회의’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합기도회를 열고 국민의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정철 연합뉴스 기자

붓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엄마를 잃은 아기 붓다의 가슴에 새겨진 트라우마
붓다의 구도 여정은 트라우마를 넘어 정신의 완성을 이뤄낸 과정이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여 새로운 엔딩을
맞이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



“일찍 어머니를 여읜 부처님의 아동기 트라우마와, 완전한 지혜와 자비에 이르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연결시키는 저자의 시각이 인상적이다. 40년 가까이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에 앞장서온 저자는 불교의 핵심 교리와 정신치료의 전문적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풍부한 사례를 들며 현대인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불교와 명상, 심리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 서광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치유하는 유식 읽기』, 『치유하는 불교 읽기』 저자)

마크 엡스타인 정신과 전문의. 하버드 의대 재학 시절인 20대 초반부터 불교 수행을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현재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을 통합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저서로 『붓다의 심리학』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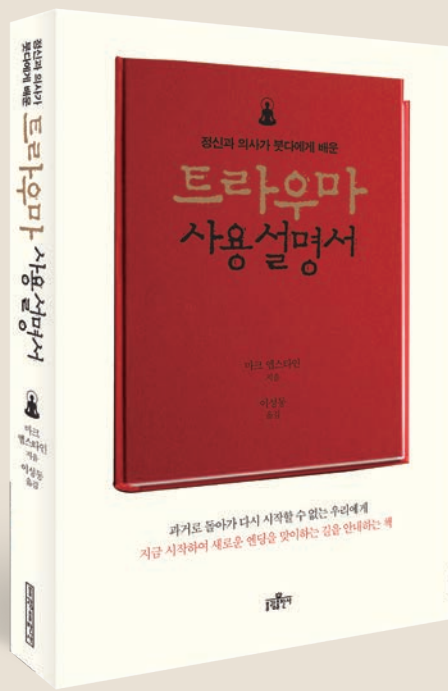
The Trauma of Everyday Life

마크 엡스타인 지음
이성동 옮김
344쪽 | 18,000원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